

## 접붙여진 성도들에게

본문 : 로마서 11장 13~24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로마서11:13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15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6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17 참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 낸 뒤,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18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 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19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20 이것은 백 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 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23 그리고 잘려 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4 여러분은 본래 붙어 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 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을 ‘접붙임’이라 합니다.
2. 먼저 선택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바울은 ‘접붙임’으로 비유합니다. 접붙임을 행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3. 들에서 자라던 야생 올리브 나무로 비유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비유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는 참 올리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가 잘려 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접붙여진 가지는 결국 나무 본체의 영양분으로 생존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가지가 본래 가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간 것이고, 반대로 이방인은 믿어서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면서 또한 엄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유대인들에게는 가지를 잘라 낼 만큼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받은 이방인에게는 인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멀어진다면 또한 잘리게 될 것입니다.
7.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는 유대인을 불신하고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교회도 함께 유대인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8.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악을 싫어하시는지, 반드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시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한 나쁜 버릇이나 성격이 있나요? 기도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합시다.